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17 호
2013 년 2 월 1 일 발행



▲ 신지마치 연말 수제소파 제작



▲ 이즈미타마즈 가설 사차춤



▲ 신지베이스의 크리스마스 트리

2013 년에 의탁하여

하느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1 년이 어떤 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부디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안락과 격려의 손길로 감싸 미소로 가득 차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제 가게야마 히로미 (함께 걷자! 프로젝트 운영위원)



▲ 가마야사 가설에서 떡 만들기



▲ 가마야사 나데스코 앞치마 합창단



▲ 이와키 시내 가설 "토미" 추억

외국인과 함께 지금까지

일본에서 피해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과의 동행을 소개합니다

마을 공방 마도카 마지막 납품

1 년간 제품 구입 지원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기어 체인지 전에 “도호쿠” 를 응시한다

주교 가토 히로미치 “3월 11 일 부터, 도호쿠로부터 본 일본”

▶ 토호쿠의 땅 - 엄격한 풍토와 역사

도호쿠 신칸센 신 아오모리 역이 2010 년에 세워 지기 전까지는 겨울에 아오모리 역에 내리면, 역사가 지붕까지 눈에 덮여 바다에서 차갑고 강한 바람이 뺨에 찔러 아무래도 이시카와 사유리의 대히트 곡 “쓰가루 해협 겨울 풍경”이 불러졌습니다.

「우에노 발 야간 열차 내린 때부터 아오모리 역은 눈, 북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무리는 아무도 말이 없고 바다 소리만 듣고 있다」

정말 북국의 힘든 정경이 전해져 오는 노래입니다. 다만 노래하는 이시카와 사유리 자신은 큐슈 구마모토 출신이다. 전반적으로 말해 아이돌이나 인기 가수는 남쪽이 많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달라진 것 같지만, 일단 토호쿠 출신의 가수는 요시 이쿠조의 “우리들은 도쿄에 간다”등, 처음에는 토호쿠 사투리와 가난을 오히려 장사로 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개방적이고 현대적이고 밝은 것, 힘이 있는 것은 남쪽에서, 또는 서쪽에서 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 돌아 간다”라는 말은 어딘가 슬픔이 있습니다. “북귀행”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창은 밤 이슬에 젖고, 별씨 멀어 ...”

“쓰가루 해협 겨울 풍경”의 주인공은 연락선을 타기 때문에 홋카이도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홋카이도에는 또 다른 개방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활동에서 토호쿠에 와 주신 분들 중에도, 홋카이도에는 몇번이나 갔었지만, 토호쿠는 처음이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로 위를 지나 갔다.

1896 년 (메이지 29 년), 이와테 현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산리쿠 쓰나미 때 피해 지역의 모습을 전한 보도에는 - 여기에 쓰는 것이 좀 그런 - 심한 차별적인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토호쿠의 가난, 말, 미신 등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비교하면 이번 상황은 전혀 다르고, 시대는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때 심각한 기근, 홍작에 시달렸던 역사를 갖고, 집단 취업이나 이주를 많이 내보내 온 토호쿠이며 지금도 젊은이의 취업률이 낮은 (일이 없을 것), 최근에 와서 노력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키타 현과 이와테 현이 자살자 비율에서 전국 제일 높은 숫자였던 것은 받아 들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호쿠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이며, 지금의 상황이며, 거기에 대한 지원 활동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꽤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도호쿠는 한마디로 대단히 넓고,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역사도 경험도 감정도 매우 다릅니다. 카마이시와 이와키와 쓰가루는 상당히 다릅니다. 후쿠시마현이라고해도, “하마도리” (바다 쪽)와 “나카도리”, 그리고 아이즈 와카마츠 같은 내륙에서는 대단히 기질도 다릅니다. 물론 각지에 그 땅의 풍토, 문화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강추위에 맞서 온 의연한 삶이 있습니다.

저 자신은 남쪽 시코쿠의 마츠야마에서 태어나 50 년간 도쿄에서 지내고 토호쿠 교구 주교가 되었습니다. “토호쿠”를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실은 어머니의 배경은 미야기현 나루코의 목각 인형 직공으로 도호쿠와 먼 인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조상도 토호쿠부터 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 이 땅에서 “반격”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삶이, 삶의 방식을 토호 쿠에서 더욱 보편해서 말하면 “농”및 “토”, 지방성에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토호쿠 의 큰 서점에는 ‘동북학’ 코너가 대지진부터 토호쿠에서 일본을 보려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쥬몽적인 배경과 일본 근대화 속에서 토호쿠의 위치, 또한 토호쿠의 민화나 축제, 풍속의 연구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동북 예술공과대학 동북 문화 연구 센터를 거점으로 한 토호쿠 대학등, 아카사카 노리오의 「3.11 에서 생각 “국가의 형태”」 신초 출판사 등. 그러나 저는 3.11 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잃은 사람은 결코 그날을 3.11 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기호화된 표현입니다).



▲센다이시/서점의 「향토책」 코너

또한 “미나미 산리쿠 농가의 딸”로 도쿄에서 근대사 연구자가 되신 분이 지진을 계기로 현지에 돌아가 대학의 특임 연구원으로 “토호쿠의 미래를 향해” 노력을 시작 하신다는 신문 기사도 촉발되는 것이 었습니다. (「아사히신문」 2012 년 7 월 4 일호.오피니온) “줄어가는 고향 · 원래있는 지역의 힘을 살려 자립에”“과소 · 고령 · 격차 세계의 문제가 응축. 여기로부터 반격”이라는 기사의 제목이 그 내용을 요약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고통부터, 토호쿠로부터 일본을 우리의 문명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음과 슬픔, 가난과 안타까움이라는 것도 결코 경시되지 않는 사회. 그러나 지난해 중의원 선거 자민당의 대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시 강한 경제 발전, 충분한 전력, 강한 외교 인 것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너무 “파워풀”한 밀려 오는 것 같은 지원 활동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쪽의 좁은 길” 조용히 조금씩 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슬로건, “어려움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라는 말의 배경,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 "함께 걷자!" 의 앞으로

피해지 분들은 일본 성공회, 전국의 도움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동서남북 교구를 넘은 청년들, 사람의 만남은 역시 좋은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경험을 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토호쿠 교구 피해를 입은 교회와 제반 시설은 전국으로 부터 전폭적인 지원, 기부금을 받았습 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소화 · 고령화 · 빈곤과 격차”문제는 토호쿠 재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 년 3 월 11 일의 사 건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아직 피해 상황에 있는 피해 지역과 이제 슬슬 잊혀지려 하고 있는 것 같은 일본 사회의 움직임 사이에 몸을 두면서, 나 자신, 자신 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성공회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2 년으로 계획되어 그것이 올해 5 월말 까지입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의 어려움이 끝나고 전망이 섰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 “끝낼 수 있는 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 “현지인들에게, 혹은 거기에있는 교회와 단체 (다른 교파, 일반 단체, 행정 포함)에 위임해 나갈 일은 무엇인가”
-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기어 체인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2 년간 일본 성공회 전국의 지원 속에서 관구 수준의 공공 사업으로 계속해 온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끝내는 방법과 다음 단계에 맞는 이행에 대해 지금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해 주세요.



외국인과 함께 걸어 왔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의 지금까지와 앞으로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외국인 피해자 지원 담당”을 설치하여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500km 에 달하는 피해 지역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어떤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망연자실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고, 그 고리가 크게 확산 되어 왔습니다. 만난 사람 대부분이 일본인 가정에 시집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지역에 뿌리 내린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나누면서 “함께 걸어왔다”는게 실감입니다. 함께 걷는 과정에서 그녀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주택을 잃은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각각 큰 고난을 겪고, 또한, 외국 국적 주민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진 전부터 있던 과제가 지진을 계기로 표면화된 것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일본에 와서부터 생활 속에서 습득한 일본어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회화는 유창해도, 깊은 이야기나 어려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읽고 쓰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많은 과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들의 사회적 입장을 약하게 하여 자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자립에 첫발을 내디뎠으면 좋겠다는 소원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과 홈 헬퍼 2 급 강좌

제 1 회 미나미 산리쿠에서, 제 2 회를 게센누마에서 실시하여, 제 1 차 강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 월부터 다시 미나미 산리쿠 마을에서 제 3 회째를 시작했습니다. 3 월부터 산코우 복지 대학의 실기 강습을 받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에 악전 고투하면서도 큰 목표를 가진 수강생들은 실로 생동감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미나미 산리쿠 시즈가와 (2012 년 4 월 수료) 6 명의 필리핀 여성 자격 취득



▲게센누마시 / 8 명의 필리핀 여성이 자격 취득을 위해 일본어 공부를 끝내고 실기 강습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 교실

~ 일본어 능력 시험 N4의 합격을 목표로 ~

센다이 사무실에서. 쿠바,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 22 명이 참가. 지난해 12 월 2 일에 응시, 현재는 2 월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 월부터는 “일본어 교실 파트 2”의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잘 이야기하고 싶다”, “한자를 공부해 일을 찾고 싶다”,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싶다” 각각의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6 번의 코스, 꿈을 향해 마음도 새롭게 출발합니다.



영어교사 양성 강좌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 많고, 모국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 양성 강좌를 개설하고,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교실 개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키, 후쿠시마, 센다이, 오후나토, 리쿠젠다카다, 이시노마키를 대상으로 개최. 필리핀, 쿠바, 칠레 등 65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미 가정이나 지역의公民館 등에 서 교실을 열고, 영어 보조 교사로 아동관이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 프로그램

지진 재해로부터 2 년 가까이 경과해도,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마음껏 대화 할 기회를 만들고, 워크숍을 여는 등, 지금까지 마음의 케어에 노력했습니다. 매번 성찬식과 프로그램 속에서의 기도는 각각 고요한 공간에 심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후나토시, 리쿠젠다카다시, 게센누마시, 센다이, 이와키에 사는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칠레인, 콜롬비아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각지에서 3 회 개최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도 행해졌습니다!



앞으로...

1 월 26 일 ~ 27 일 각지의 대표를 초청하여, 지금까지 공유해온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2 년 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다민족 공생 사회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키시 (후쿠시마) / 오나하마 성 디모데 봉사자센터 신년보고

2013 년의 개막은 5 일 이즈미 타마즈 가설 주택에서 떡치기 대회였습니다.

전날 4 일 오후 현지에 관계자가 집결하고, 새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나눈 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치회 임원, 자원봉사 그룹 “훗코리” 멤버를 중심으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성 디모데 자원 봉사자 센터에서 떡방아 절구통과 절구, 아궁이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것들은 미토의 애은 유치원에서 빌린 것입니다. 텐트는 의료 생협 병원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5 일 개막 일을 맞이했습니다. 당일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로 이른 아침부터 관계자 외에도 많은 자원 봉사자가 참가해 2 가마니의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팔 떡, 쿡가루 떡, 떡국이 총 400 여명의 참가자에게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 솜사탕, 계란말이, 복권 게임 등을 지원 단체가 제공해 주 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지역 주민의 여흥이 활기를 더했습니다. 어린이 치어 리더, 춤, 태극권을 선보였고 검무, 마지막에 한층 웃음을 자아낸 것은 지역에 사는 케이시 타카미네 씨의 만담이 있었습니다. 자치회의 임원 들과 봉사자 분 들은 작년보다 모두가 밝아졌다, 참가자도 젊은 사람도 늘었다며 기쁨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 베테랑분들



▲ 지역민의 춤

■신지 마을 (후쿠시마 현) / 신지 베이스 “센터 신지”2012~2013

센터 홀 한 편에 빛도 선명한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매년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에서 장식되었던 장식이 올해는 3 개의 가설에서 달려와 준 여러분의 손으로 단장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말 연시를 낀 6 일 (일) 공현일 성찬식 후 교류 축제 때까지 센터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문자 한 분 한 분과 봉사 스태프의 동향을 트리는 지켜 봐 왔습니다 .

“둘만의 연말은 쓸쓸 하겠지”라며 손수 선달 그름 소바와 명절요리를 보내 주신 S 님, N 부부.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스텝과 닭에게 음식을 계속 나르고 , 아무렇지도 않게 환담하고 돌아가신 H 님, M 님. 4 명에서 0 시 카운트 다운과 새해 맞이를 함께 해 준 2 명의 K 님.” “안녕 야채, 안녕 조림, 안녕 닭들에게” 일 하는 김에 들러 주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은 모두 동일본 대지진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고, 주택을 잃은 한 지역 분들 이었습니다.

설날부터 5 명의 자원 봉사 스태프도 합류해, 지역 자원 봉사자와 여름 캠프 추억모임, 상영회, 뜨개질 교실, 다과회, 순례, 신년회, 저녁 만찬회, 지압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에 협력해 주셨습니다.

“센터 신지”에서 맞이한 첫 연말 연시. 반년 전인 지난해 6 월 오픈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신선하고 인상 깊고 여기에서 함께 걸은 귀중한 둘도 없는 1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 성찬식 후 교류 축하 모임.
안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 1 월 3 일의 뜨개질 교실

■카마이시(이와테 현) / 카마이시 피해자 지원 센터의 가는 해 오는 해

센터도 2 번째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말 연시를 보내는 방법은 피해자 분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지원자 측의 사정에 의한 지원이 아닌 피해자 위주의 지원을 하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월부터 연초까지 매우 분주했습니다. 센다이 기독교회 성가대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로부터 시작, 히로사키 대학 글라스 하프 콘서트 플루트와 노래 콘서트 등 음악계의 관심 프로그램 만도 10 회를 넘었고, 그 외에 어린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3 번, 떡방아를 총 6 곳에서 연말 청소 대의 활동이 2곳 가설 약 50 가구. 이에 병행하여 4 개의 가설에서 정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은 피해자 여러분이 어떻게 설날을 맞이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의 생활 방법을 생각해 옛날처럼 지낸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족과 느긋하게 보내는 설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살짝 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설날이었습니다.



▲ 글라스 하프 콘서트



▲ 가설에서 떡치기 대회.
떡의 맛은 5 가지!

■고리야마시 (후쿠시마 현) / 고리야마 성 베드로 성 바우로 교회 회관 준공식

지진으로 파괴 된 고리야마 성 베드로 성 바우로 교회의 새로운 회관이 완성 되었습니다. 노송나무 향기가 나는, 매우 따뜻한 건물입니다. 1 월 14 일 준공 식 당일은 폭설이었지만, 토호쿠 · 키타칸토 교구 등 각지 에서 60 여명이 모였다. 고리야마 신도 · 지역 분들과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풍부하게 사용될 것을 기도, 지어진 회관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구와 교회의 선교 활동의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개방된 시설로, 또한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후쿠시마 지원 활동의 베이스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성수를 뿌리면서 참석자
전원이 홀 안을 일주

■센다이 (미야기 현) / 마도카 상품 구입 지원 종료

프로젝트는 2011 년 여름부터 마유다마의 오너먼트와 달력 등 “거리의 공방 마도 카”(지적 장애인을 위한 통원 작업장 / 센다이 태백구)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액이 통원 한 분들의 공임에 반영되고 동시에 마도카 일도 창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받은 국내외 분 들 로 부터 마도카의 기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추운 날씨 사무실까지 납품을
위해 와 주신 여러분

매월 납품은 언제나 직원분들이와 주셨는데, 마지막 납품은 총 17 명의 통원 여러분도 함께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도카는 쓰나미로 파괴된 시설로부터 가설 작업장을 거쳐 지난해 6 월 새로운 시설로 이사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분들과 멀리서 손님을 맞이하는 기회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진의 극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설에서의 활동만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지진과 같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 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통원자 중에는 지진의 공포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구입 지원은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마도카 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개인으로 마도카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홈페이지 (우측란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마유다마 부활달걀 안내



성공회를 위해 “마도카” 여러분이 만들어 준 “마유다마”의 오뚜기입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사무국은 건본을 여러분의 수중에 전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거나 사무국 (담당자 :마츠 무라 노조미)에 문의하십시오.

【홈페이지】

<http://www.nskk.org/walk/>

【사무국】

전화 022-265-5221

메일 walk@nskk.org

가설지원

- 방석배포 / 오사노 가설 (가마이시)
- 요리모임 / 갓시 B 가설 (가마이시)
- 리스만들기 / 오히타 동 가설 (가마이시)
- 떡치기 대회 / 오소네가설 · 갓시 B · 가미나카시마 가설 · 갓시 10 가설 · 소화엔 가설 (가마이시)
-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 ◆햏코나 (오차회) ,햏시네마 (영화회) ,지압맛사지 / 히로다 가설 (신지마치)
- ◆햏시네마 (영화회) / 간코야가설 (신지마치)
- ◆컷서비스 / 사쿠다 가설 (신지마치)
- ◆햏코리카페,크리스마스,떡치기대회 / 이즈미타마쯔 가설 · 와타나베마치 히루노 가설 (이와키시)

그 외에도 ... 노래 모임, 휴게실 프로그램, 감자 배포, 수건 배포, 글라스 하프 연주회, 수제 양말 커버 증정, 자원 봉사자 위로회, 크리스마스 모임 등

장애자 지원

- ▲상품구입지원, 판매지원 / 센다이시 (마도카)
- ▲작업보조 / 게센누마시 (히와리)
- ▲크리스마스, 도움 / 센다이시 (마도카)

외국인 지원

- ▲개별 지원 (어린이 학습 지원, 간행물의 해설, 직업 소개소 등 동행, 기타) / 이시노마키시, 다카쵸, 센다이
- ▲영어회화 교실 개강 도움 / 나토리시, 센다이
- ▲손수 만드는작업 / 미나미산리쿠

- ▲일본어교실 / 센다이시
- ★회복프로그램 / 모리오카, 이와키

기타

- ▲나자렛, 아오바 등 물자 정리 / 센다이
- ◆계란 나누어 줌 / 신지마치
- ★유치원 행사 도움 / 가마이시, 아이즈와카마츠, 고리야마

◆유치원에서 스모 교실 / 아이즈와카마츠시, 고리야마시

원래 선수가 성공회 두 유치원을 방문. 방사능의 영향으로 좀처럼 밖에서 놀 수 없는 아이들과 마음껏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식품 등의 방사능 측정 의뢰 / 센다이

센다이 기독교 연합 재해 지원 네트워크 (토호쿠 헬프)가 운영하는 식품 방사능 측정 장소에서 점검 해 받는 것으로, 외국인 등 자력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한 분들, 식품에 대한 불안을 가진 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기타 여러현에 있어서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각지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반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칼럼 > 그날 그때, 그 사람.

⑥토호쿠의 새해

토호쿠의 새해 행사에, "돈토 축제"가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유사한 축제가 있고 부르는 법은 다양하지만, 정월 대보름에 정월 장식 등을 신사에서 태워 1 년간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2013 년 1 월, 미야기 현 케센누마시의 한 지역에서 2 년 만에 돈토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일에 의해 신사도 주위의 건물도 파괴되어 지진에 의해 지반이 약 70cm 내려간 지역에서 지금도 만조시에는 침수 되고 있습니다. 신사 주변에 사는 분들도 집을 잃고 지금은 가설 주택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곳에서 또 돈토 축제를하고 싶다는 소원으로 2 년 만에 불꽃이 켜졌습니다.



센다이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돈토 축제 이외에도 사자춤, 대연 축제 등 도구나 마음의 문제로 1 년 전에 못했던 계절 행사가 조금씩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아직도 멀다고 느끼는 것이 많은 피해 지역의 현상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군요,라고 지역민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가 조금이라도 많이 되 찾을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2013 년 1 월 센다이 베이스)



함께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11 호 2012 년 7 월 1 일 발행

「함께걷자!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00~17:00

CLOSE 토·일·추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4-5 크라이스 빌딩 2 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